셀트리온헬스케어 '유플라이마' 이탈리아 5개 주정부 입찰 수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유일한 80㎎ 용량으로 차별화
유럽서 직판 경험·노하우 영향
소아환자 대상 20㎎ 허가 앞둬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성분명 : 아달리무맙)가 이탈리아 입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럽 주요 5개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올 3분기 개최된 캄파냐(Campagna), 움브리아(Umbria), 피에몬테(Piemonte), 몰리제(Molise) 및 발레디오스타(Valle d'Aosta) 주정부 입찰에 참여한 결과, 유플라이마가 낙찰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5개 주정부는 이탈리아 아달리무맙 시장의 약 20%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지난 8월부터 유플라이마 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상호 계약에 따라 주별로 1~3년간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올 1분기에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및 베네토(Veneto)주에서 개최된 아달리무맙 입찰에서도 유플라이마가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유일하게 80㎎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차별점이 시장 선점 효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에서 기존 3개 제품을 직접판매(직판)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후속 제품 처방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올 상반기에만 54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매출을 반년 만에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쌓았다. 올 연말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0㎎ 용량 허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처방 확대 계획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원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탈리아 법인장은 "기존 제품들을 통해 입증된 커머셜 역량과 제품 경쟁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입찰 수주 성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플라이마가 셀트리온의 유럽 매출을 견인하는 주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국가별 입찰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NASH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 최초 개시

〈비알콜성지방간염〉

동아ST

치료제 DA-1241, 美 환자에 첫 투약
16주간 86명 대상… 효능·안정성 확인

최초의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 2상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14일 미국에서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DA-1241' 글로벌 임상 2상의 미국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DA-1241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NASH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진행된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따르면 'DA-1241'은 GPR119 작용제 기전의 혁신 신약으로, 전임상에서 NASH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GPR119는 G 단백질 결합 수용체(GPR)다. DA-1241은 GPR119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DA-1241 투여 후 간염증, 염증, 섬유화, 지질 대사 및 포도당 조절 등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DA-1241의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 지난 8월 미국 임상시험위원회(IRB) 승인을 획득했으며, 임상 대상자 스크리닝을 거쳐 첫 임상 환자 등록까지 마쳤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이번 임상을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종료할 계획이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R&D 전진기지로 DA-1241을 비롯해 DA-1726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도 담당하고 있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관계자는 "DA-1726은 비만 및 NASH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 1상 IND(임상시험용 신약)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풀무원 고단백 결두부로 닭강정 재현

풀무원은 '고단백 결두부'로 닭고기의 질감을 모방한 '식물성 지구식단 결이 다른 큐브강정'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풀무원이 독자적 고유 기술로 구현한 고단백 결두부는 얇은 두부가 여러 겹 쌓인 결 형태다. 대두에서 추출한 두유를 냉각한 뒤 응고제를 넣고 냉동, 해동, 성형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일정한 짜임새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결이 다른 큐브강정'은 소스까지 식물성으로 만들어 식물성 식단 구성이 가능하다. 두가지 맛으로 '달콤소이'와 '매콤바베큐'가 있다. /이청하 기자

보령A&D메디칼, 가정용 혈압계 출시

UA-611플러스, 심방세동까지 측정

보령(구 보령제약)의 의료기기 전문 계열사 보령A&D메디칼은 스테디셀러 제품 'UA-611'의 성능을 대폭 향상한 가정용 혈압계 'UA-611플러스(Plus)'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UA-611Plus는 이전 모델 대비 2배 증가한 60개의 메모리를 탑재함으로써, 60회까지 혈압기록 저장을 지원해 장기간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필요시 별매로 '소형 커프'로 교체할 수 있어 팔 둘레가 작은 여성과 아동·청소년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제품이 불규칙맥파만 측정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심방세동'까지 측정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이 이뤄졌다. 심방세동이란 심장의 보조 펌프인 심방에 이상이 생겨 1분당 400~600회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이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등 합병증을 유발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해당 제품은 일본 A&D사와 지치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심방세동 감지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MS 뎅기열 신속 진단키트 수출 허가

혈액 검체 통해 20분 이내 진단 가능

GC녹십자MS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뎅기열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 'GENEDIA W Dengue NS1 Ag'(사진)항원 테스트와 'GENEDIA W Dengue IgM/IgG Ab'의 항체 테스트의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뎅기열 진단키트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됐다. 혈액 검체를 통해 20분 이내에 뎅기열을 진단할 수 있으며 4가지의 뎅기 바이러스 혈청형을 모두 진단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뎅기열은 지카바이러스와 같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열성질환이다. 치쿤구니야 등과 같이 다른 모기 매개 질병과 증상이 유사해 감별 진단이 필요하며,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가속화로 국제적으로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 전파 위험이 증가되어 방역과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중심으로 모기 매개 질환인 뎅기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수출용 허가 획득을 계기로 모기 매개 감염 바이러스 진단키트 시장에서의 빠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뎅기열 이외 의도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후속 제품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콜마글로벌, '컨디션'으로 싱가포르 공략

베트남서 시장 개척 후 진출 이어가

콜마글로벌이 베트남에서 숙취해소제·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컨디션'의 시장성을 확인한 가운데 싱가포르로 진출한다.

콜마글로벌은 지난 4일 컨디션 브랜드 제품들을 싱가포르 최대 헬스앤뷰티(H&B) 매장인 가디언(Guardian)에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시 제품은 컨디션 음료, 컨디션 스틱, 싱가포르 현지 특성을 반영한 음료 컨디션 커큐민패스트, 건강기능식품 컨디션 프로바이오 등이다. 가디언은 동남아시아 최대 유통기업 '데어리팜 그룹'이 지난 1967년 설립했으며 싱가포르 내에 12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콜마글로벌 관계자는 "올해 가디언을 비롯해 싱가포르 내 주요 H&B 채널은 물론 편의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영업망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콜마글로벌은 동남아 최대 시장인 베트남에서 숙취해소제 컨디션을 연간 100만 병 이상 판매하고 있다. '숙취 해소'라는 개념 조차 없던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매출 78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00억원 매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향후 콜마글로벌은 주변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에도 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정문목 동원홈푸드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전현제 더슬로우컴퍼니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홈푸드

동원홈푸드, 슬로우캘리와 식자재 공급 강화

110여개 가맹점에 150억 규모 공급

동원홈푸드가 더슬로우컴퍼니와 '식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동원홈푸드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하와이안 포케 샐러드 카페 브랜드 '슬로우캘리'를 운영하는 더슬로우컴퍼니와 식자재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홈푸드는 전국 110여개 슬로우캘리 가맹점에 연간 150억원 규모의 식자재를 공급하게 됐다.

슬로우캘리는 지난 2018년 연남동 본점에서 시작해 가맹 사업 2년 만에 전국 110호점 출점을 기록한 포케 샐러드 전문점이다. 포케는 연어, 참치 등 수산물에 밥과 각종 채소, 견과류 등을 곁들인 슬로우캘리의 대표 메뉴다.

한편 동원홈푸드는 산지구매,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가로부터 고품질의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으며, 직접 제조한 소스와 드레싱은 물론 가공식품과 비식품에 이르는 500여 종의 식자재를 취급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